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순간,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없이 선택한 인생은 마치 ‘터진 웅덩이’를 파듯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할 뿐입니다(렘 2:13).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셨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인간적인 결과를 얻지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선택’에 있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창 13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롯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롯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창 3:5).”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 했습니다(창 3:5). 그러나 되레 늘 선택의 상황에서 갈등하며 변민하는 존재, 동시에 ‘후회’를 달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모르게 되었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숨어 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선택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결과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들은 그대로 우리 삶의 족적이 됩니다.

내 인생에 최악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 ① 왜 선택했으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 ②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습니까?